
2021년 제3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9. 10. ~ 9. 1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9. 10.	시청률	0.000

【총 평】

골목길과 마을을 관광자원과 문화공간으로 특성있게 만들고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화, 휠체어를 수리해 무료로 대여, 전국 곳곳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여행지 등 다양한 소주제 중심의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골목길과 마을을 관광자원과 문화공간으로 특성있게 탈바꿈하는 부산 전리단길과 충남 서천군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일제강점기의 오래된 건물들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화하고, 휠체어를 수리해 무료로 대여하는 위민봉사는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이었다. '전국 곳곳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여행지'에 소개된 '활의 고장 대구'와 '제천과 단양의 이색 꽃밭'은 영상미가 빼어났다. 글로벌 리포트는 소녀상의 의미와 위안부 피해 역사 교육에 앞장선 독일 베를린 코리아협약회의 사례가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 부산 '망미골목',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부산시와 관광공사가 다양한 골목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성 강한 서점과 예술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망미골목과 공구상가로 이용했던 건물을 카페로 활용한 전리단길을 소개하며, 부산시의 골목정책을 생동감 넘치게 소개했다.
- 시간이 멈춘 '판교마을' 문화재 지정 눈앞
충남 서천군 판교마을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 보존 되어있다. 옛날 사진관을 비롯해 정미소, 극장, 주조장 등이 원형을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판교마을 건축물 7곳의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 베를린 청소년들, 평화 위한 '소녀상' 지켜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내 옆에 앉아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소녀상의 의미와 위안부 피해에 대해 알리는 행사로 전쟁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평화와 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휠체어·전동스쿠터' 무료로 빌려 쓰세요
경기도 성남시는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용구를 신청하면 1인당 2점까지 대여가능하고, 배송과 설치까지 해준다. 성남시는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현금 포인트 쓱쓱, '재활용품 자동회수' 호응
광주광역시시는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설치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민들은 재활용품을 자동회수기에 투입하고 현금 포인트로 적립 받고 있다.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0포인트가 쌓이면 현금 2000원을 받을 수 있어 자원재활용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9. 10.	시청률	0.004

【총 평】

WHO는 코로나 종식은 희박하며 독감처럼 변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위드 코로나 단계에 있는 우리의 백신 접종 현황과 그에 따른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이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의 세계 선박시장에서 세계 1등 조선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K-조선의 재도약 전략과 조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알아보았다. 이 밖에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정부는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보상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때 국가보상은 피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국가보상 심사 절차의 내용과 심의 결과 이상 반응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내용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 조선업은 호황을 이루고 있다. 선박 수주가 밀려들고 있고 대기업은 연말까지 계약이 다 차있는 상태로 발주기록만으로는 전세계에 1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주와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 강화시킨다면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 또는 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어서 연말까지 수주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의 재고용과 젊은 인력 양성에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 K-조선 재도약 전략으로 원활한 인력수급과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재고용 인센티브 및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벌크선 수주에서 벗어나 저탄소 친환경, 디지털화로 전환을 꾀하여 신기술로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K-조선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앞으로 탄소배출 선박을 제재하여 2050년까지는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추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제조과정에서부터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조선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친환경 선박 시장으로의 전환 계획을 통해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조선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장기적 무탄소선박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생산에 있어서 자동화와 시스템 구축의 종합적 전략 및 산학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 인력, 기술 등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K-조선의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경제&이슈' 의 또 다른 이슈로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9. 10.	시청률	0.064

【총 평】

‘금오도를 달리는 만물 트럭’편은 25년째 금오도 마을을 돌며 만물트럭으로 주민들에게 요긴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주민들의 심부름까지 도맡아하는 60대 주인공의 일상을 담아 소확행과 힐링을 일깨운 기획이 돋보였다.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인 주인공의 삶을 통해 일의 즐거움과 주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잘 드러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섬주민의 생활물품 배달부이자 택배 심부름꾼 역할까지 하며 만물 트럭에 만족하는 일상이 잘 그려졌다. “생계수단을 넘어 소중한 추억을 싣고 달린다.”는 주인공의 삶의 철학이 코로나19 블루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에게 공감도를 높였다. 만물트럭과 함께 비춰진 해안절벽 비렁길 등 금오도의 비경도 함께 볼 수 있어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비가 쏟아져 내리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돌산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전남 여수시 금오도를 방문했다. 365개의 섬이 있어 다도해라고 불리는 여수 앞바다에서 중 두 번째로 큰 섬 금오도에는 비렁길이라고 불리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금오도에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만물트럭이 다닌다. 트럭을 운전하는 주인공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오도를 방문하는데 벌써 20여년이 되어간다. 만물트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부탁은 물론 택배도 받아주고 물건도 배달해준다. 섬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주인공은 금오도 주민들의 물건 심부름을 하다가 직업이 되었다. 만물트럭을 기다렸던 주민들이 모여 물건을 사는 모습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전달되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주인공의 일과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시장 곳곳을 다니며 트럭의 짐칸을 가득 채운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태풍이나 안개로 인해 배가 운항을 하지 않는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과다. 장을 다본 뒤에는 여수 연안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하여 배를 탄다. 정시에 도착하더라도 선박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 배를 못타거나 다른 터미널로 급박하게 이동하기도 한다. 한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하면 금오도에 도착한다. 도착 이후에는 음악을 틀고 손님을 보기 위해 천천히 이동한다. 돌아다니다 지치면 잠시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여유를 가진다. 주인공은 앞으로 10년 정도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생계 수단을 넘어 20여 년이 지나면서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금오도를 달리는 만물 트럭’편은 만물트럭과 함께 비춰진 해안절벽 비렁길 등 금오도의 비경도 함께 볼 수 있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365개 다도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금오도 전경과 전형적인 어촌 마을 안도, 백금포 해수욕장 푸른바다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9. 11.	시청률	0.120

【총 평】

“6만 그루 편백나무 숲에서 쉬어 갈까요?”편은 충북 영동군 용화면 치유의 숲을 소개했는데, 50년 넘은 편백나무와 나무 심기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 올해로 귀산 8년 차인 부부가 가꾸고 있는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숲은 40만 평의 대지에 50년 넘은 편백나무 6만 주가 조림돼 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꾼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숲을 가꾸는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산 40만평에다가 조성한 편백나무숲은 몸에 좋다는 치통피드가 그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6만 그루의 편백나무를 가꾸어 왔는데, 이제 50년 된 듬직한 나무로 성장했다.

【구성 및 내용】

주인공의 아버지는 70년 전 일본에서 편백나무를 처음 접해본 후 이렇게 좋은 나무를 고향에 심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벌채 사업을 했던 주인공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나무를 베면 그 보상으로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일념으로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 숲을 가꾸는 일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긴 안목과 인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는 부부는 귀산을 결심했다.

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편백나무 숲을 차마 팔아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산 곳곳에 베어있는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숲을 가꾸고 있다.

숲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오감에 좋다는 산림욕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주인공은 편백나무의 효용을 공부하고 산림치유공부도 하고 있다. 편백오일, 편백베개, 편백 증류수 등이 이 나무숲에서 나오는 선물이다. 산 40만평에다가 조성한 편백나무 숲은 몸에 좋다는 치통피드가 그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6만 그루의 편백나무를 가꾸어 왔는데, 이제 50년 된 듬직한 나무로 성장했다. 이 곳에는 벌목 사업을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벌목하는 만큼 나무를 심었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생철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편백나무 숲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부는 알음알음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숲과 관련된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부부의 일상이 편안하고 소박하게 전해졌다. 귀산 생활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0년은 너끈히 산을 가꾸는 일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환하게 웃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날 게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마무리 메시지는 숲을 가꾸고 공유하는 주인공의 진정성이 담겨져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9. 12.	시청률	0.044

【총 평】

‘친북’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청년 민심을 잡기위해 나선 배경과 의미, 효과 등을 짚어보고 ‘이슈텔링’은 작은 통일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의미, 개성공단 재개를 연결고리로 남북의 현재 경색 국면을 타개할 해결책을 모색해 본 기획이 주목도를 높였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험지노동 자원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고된 노동현장과 오지에 20~30대 청년들을 투입해 외부세력의 사상문화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 겪고 있는 북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민심 잡기 위해 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기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시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청년들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세대인 20~30대 북한 청년들은 외부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체제 붕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장마당 세대이기도 하다. 청년세대들의 일상생활속 말투나 용어까지 단속에 나섰다. 국가가 청년의 민심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단속 강화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최근 ‘오빠’, ‘남친’ 등 남한식 신조어를 금지했고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시청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 대북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임에도 징역형인 5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렸다. 한국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시에는 최대 사형까지 내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베푸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청년절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청년들 중 험지에서의 노동을 자란 이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탄광이나 댐 공사현장 등 고된 노동 현장에 20~30대 청년들이 투입되는데 김 위원장은 청년들을 오지에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험지 노동 후 충분한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험지, 오지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청년들의 반발심이 심해지고 오히려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다.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한 이후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편의점이 생겼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근무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데 반해 북한 직원들은 소속감, 자부심, 책임감이 강해 매출 목표 달성에 있어 편의점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념일의 경우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다시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개성공단은 대륙을 향한 육로 진출의 교두보로 한반도 화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9. 12.	시청률	0.084

【총 평】

‘NO머니 NO연애’, ‘영끌&빚투’ 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의 큰 고민이라 할 수 있는 돈과 사랑, 그리고 안정된 자산 형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MZ세대의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과 땀 흘려 돈을 벌고 결혼도 하라는 기성세대의 견해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광풍에 내몰린 20대들의 생각과 결혼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깊은 고민에 이르기까지 MZ세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주식투자를 통해 빠른 경제적 은퇴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젊은 세대가 빚을 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성 및 내용】

주식투자로 성공한 출연자와 돈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다. 끈대할매는 삶의 방식에 대해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출연자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끈대할매는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며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라며 반대의견을 내세웠고, 젊은 사람들은 주식투자의 배경 지식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답했다.

끈대할매가 옛날에는 셋방에서 시작해서 살림을 늘려갔다고 얘기하자 MZ세대는 월급을 저축해서는 집을 매수할 수 없어서 주택구입 포기,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삼포 세대 나아가 오포세대라고 말했다.

연애에 대한 얘기를 되짚으며 이성적 매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물었는데, 망설임 없이 ‘외향’을 꼽았다. 그 이유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여 이성을 사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그리 모든 게 성급하기만 하느냐 하면서 끈대할매는 젊은 시절 낭만적인 데이트를 회상했다. ‘라떼’는 돈이 들지 않는 데이트를 했으며 한적한 능(陵)이 데이트 장소였다고 말하자 ‘남의 무덤’으로 오해하고 출연자들은 펄쩍 뛰었다. 연애의 낭만을 길게 즐길 수 있었던 끈대할매 세대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선택을 달리해야 하는 세대와의 차이를 생각해보았다.

출연자에게 주식투자로 돈도 벌었는데 연애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은퇴 후 벌이 없이 돈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영끌과 빚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출연자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없으니 빚투(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집을 마련할 만큼 큰돈이 없는 MZ세대는 가능한 방법으로 자산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실패의 위험도 있으므로, 투자할 때는 한번에 큰돈을 투자하면 안되고 분산투자를 충고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9. 12.	시청률	0.030

【총 평】

‘첫알오름의 비극과 해원 - 제주 예비검속 사건 2부’는 ‘제주 북부 예비 검속 사건 1부’에 이어 모슬포와 한림지역에서 발생한 주민 학살 사건의 배경과 특성, 국가 권력에 의해 반복된 주민 학살과 위령비 훼손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제주 남부 예비검속 사건’은 4.3사건 연장선이자 한국전쟁 변수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의 배경과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 설득력을 높였고, 국가권력에 의해 반복된 주민 학살과 위령비 훼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혼인에 반대한다는 앙심으로 보복한 경찰관 등 어처구니없는 주민 학살 동기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비극적인 역사의 참상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실천적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진실 그리고 화해’의 기획의도를 살린 점이 유의미했다.

진실화해 위원회는 2007년 경찰과 해병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제주 예비검속 첫알오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주체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 사업지원과 평화 인권 교육의 강화를 권고했다.

【구성 및 내용】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도민들의 좌익가담을 담은 정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예비검속자들은 모슬포 절간 고구마창고에 구금되어 있다가 송악산 첫알오름으로 이동되었다. 사람들은 소지품을 던져 자신들이 끌려간 곳을 알리려 했다. 첫알오름은 일본군이 만든 탄약고가 있던 곳으로 해병대원들은 검속자들을 총살하고 폭탄 구덩이로 던져버렸다. 이후 시신수습이 경찰, 군인들의 방해로 늦게 이뤄졌고 대다수의 시신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합동으로 모셨다. 이렇게 조성된 백조일손 묘역은 그간 위령비가 훼손되고 유린되는 등 유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주었다.

한림읍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은 한림어업창고에 구금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예비검속자들 중에는 개인감정에 의해 잡혀간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증언을 받았다. 지역마다 할당된 예비검속자 수가 설정되어 있었고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것이다. 한림지역 예비검속자들 또한 첫알오름에서 총살되어 두 구덩이 중 한군데로 던져져 버렸다. 한림지역 유족들도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만병디(한림) 묘역을 조성했는데 신도리, 신평리 등 타지역 희생자들 또한 함께 모셔졌다. 모슬포 첫알오름으로 끌려가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 도로에 고무신을 던져 놓은 모습, 고무신 앞에 술잔을 놓고 추모하는 유족들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희생자 120여 유해를 수습해 ‘백조일손지지’ 합동묘지와 위령비를 세운 유족들의 모습, 유적지가 학생들에게 평화와 인권교육,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해원’과 ‘화해’ 메시지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9. 12.	시청률	0.071

【총 평】

‘상상이 현실이 되다, 메타버스’편은 시청자에게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기획의도에 맞게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게임은 물론 대학교 입학식, 명품브랜드 입점, 블랙핑크 팬사인회 등 메타버스의 실사례를 보여줌으로서 재미와 주목도를 높였다. 줌이나 웹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상회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캐주얼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핵심이 되는 메타버스의 강점을 강조하여 쉽게 접근했다. 또 중장년층에게 친숙한 싸이월드 서비스 미니홈피와 비교접근을 통해 메타버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다.

【구성 및 내용】

메타버스의 개념 정리부터 메타버스 활용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 방향까지 진화되고 발전하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또 메타버스 해외 사례와 국내 활용 사례를 둘러보고 메타버스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블랙핑크 팬 사인회, 대학교 입학식, 제페토 내 명품점 입점과 가상 아바타를 실물화 하는 사례, 아바타를 생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XR기기’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접근해 이해력을 높인 점이 좋았다. 메타버스가 이미지메이킹이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현실을 더 풍부하게 하는 여러요소로 흥미를 끌었다.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용어가 향후에는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3D 가상세계로 발달하면서 가상세계가 상용화되는 변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오던 인터넷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한 방식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VR헤드셋을 쓰고 파티를 하는 해변에도 가고, 회의에 참여도 하는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가상 세계에서 일상이 가능해진다. 또 비행기 여행을 하는 플라이트 게임으로 XR기기를 이용하여 3차원의 가상공간을 즐길 수 있다. 줌이나 웨비나 등으로 회의를 하고 실물 대면이 줄어들어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화상회의 후 로그아웃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동료들을 만나 캐주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VR이나 XR을 이용하여 평면에서 360도 공간으로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콘텐츠와 시장이 개척될 것이다. 5G, 6G망으로 XR과 IOT 사용이 가능하여 스마트폰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기 혁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콘텐츠로서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려도 살펴보았다.